

1970년대 근대 국가 논리 속에서 장려된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허상의 젠더성

- 김승옥의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권 현 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국가가 장려한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허상 |
| 2.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중산층 가정과 중산층(으로)의 욕망 | 1) 계층 상승의 교환가치로 전락하는 몸과 집 |
| 1) 중산층 가정의 주거공간과 생활양식 | 2)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모순과 허상 |
| 2)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을 향한 욕망 | 4. 중산층 판타지의 젠더 편향성 |
| | 5. 나가며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 중산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당대 정권의 정책과 관련하여 김승옥의 「강변부인」을 살펴본 것이다.

중산층 가정의 주거공간, 생활양식은 당대의 근대적 표상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산층(으로)의 욕망은 주체가 느끼는 성적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욕망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때 주체의 성적 욕망은 한낱 망측한 본능으로만 간주된다. 하지만 작중 말미에서는 결국 그 망측한 욕망이 중산층과 중산층 가정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된다. 왜냐하면 중산층(으로)의 욕망은 계층 상승을 위해 자신의 몸과 집을 교환가치로 전략시키고, 이 과정에서 가정 또한 불륜의 목인 및 방관을 통해 가장 불건전한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소설은 위와 같은 당대의 시대상을 대중소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교묘히 드러내고 비웃으며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중에서 보여주는 중산층의 판타지에는 적나라한 젠더적 위계가 녹아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계층 상승의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임에도 남성의 행위는 건설적인 것으로 여성의 행위는 천박한 것으로 치부되며 젠더적 위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산층의 부조리나 천박한 면모를 여성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김승옥은 「강변부인」에서 당대의 질서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시대를 읽어내며 통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젠더적 위계를 통해 개발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였던 지배 질서의 함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그대로 체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제어 : 「강변부인」, 중산층, 중산층 가정, 욕망, 허상, 젠더적 위계

1. 들어가며

1960년대 이후 발표된 김승옥의 작품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대중성·통속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것은 김승옥이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듯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그를 ‘1960년대 작가’¹⁾라는 자장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소설²⁾은 “당대적 풍속 위에서 존재하는 장르”³⁾이기 때문에 “생활세계에 내면화된 당대의 이데올로기”⁴⁾가 텍스트 안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1960년대 후반 이후 집필된 김승옥의 대중소설 또한 단순히 대중성·통속성이 짙은 작품으로만 재단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대중소설은 여전히 다방면에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소설로 치부되어 주된 논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김승옥의 소설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중 「강변부인」에 주목하였다.

「강변부인」은 1977년 『일요신문』에 연재된 김승옥의 대중소설이다. 이 소설은 신문이라는 대중적인 매체에 연재되었던 만큼 당대의 시대상이 적나라하게 녹아있는 작품이다. 김승옥 또한 「강변부인」을 두고 “70

- 1) 십수 년의 간격이 이전에 썼던 작품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집결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60년대 작가’라는 별칭이 붙어다니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제 보니 이 카테고리야말로 60년대 상황인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0년대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설들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내가 ‘60년대 작가’임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7쪽.
- 2) 대중문화는 시대적 변모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 형식과 실천들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대중소설 또한 대중문화와 같은 맥락 속에 놓이는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소설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변모하는 문화적 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 속에 고정적으로 묶어두고 정의 내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는 한정적인 의미에서나마 대중소설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사용할 대중소설이란 당대의 다양한 문화가치와 이데올로기들이 혼종·조합되는 영역임과 동시에 인간의 통속적 측면, 경제적(상업적) 측면, 문학의 효용적 측면들 또한 강조하는 소설로 간주할 것이다. 토니 베넷, 박명진 외 편역, 「대중성과 대중 문화의 정치학」,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1996, 267쪽 참고.
- 3) 정종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 1940~19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53쪽.
- 4) 정종현, 위의 글, 154쪽.

년대적 상황의 조명을 받아야만 리얼리티를 얻을 수 있는 소설”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강변부인」을 면밀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이 연재되었던 1970년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내놓은 근대화 정책들이 그 성과를 빚어내던 시기였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이 글이 「강변부인」과 관련하여 주목한 키워드는 근대 국가 논리 속에서 호명된 중산층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부터 “건전한 중산층 육성이 민주사회의 기본”⁶⁾이라고 여기며 중산층 육성에 힘썼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서도 유효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기업인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이 많으면 기업의 성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⁷⁾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어도 국민소득이 1천 달러는 돼야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문화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걸고 천신만고 끝에 산업사회의 실험단계를 거쳐 이제는 과실을 거두어가는 단계에 들어갔다”⁸⁾라고 언급한 바 있다.⁹⁾

이때 주목할 점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중산층 육성이 단순히 당시 남한사회의 경제 성장 지표를 높이는 데에만 일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산층의 육성은 “잘사는 것이 승공(勝共)하는 첩경”¹⁰⁾이라 여겨

5)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11쪽.

6) 「선거 “공명” 흐리면 누구든지 엄단」, 『동아일보』, 1966.12.17.

7) 「고보사 연설요지」, 『매일경제』, 1974.3.11.

8) 「고보사 연설요지」, 위의 기사.

9) 박정희 정권의 중산층 육성에 대한 관심은 70년대 후반으로도 이어진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보장확충”을 위해 “중산층 육성 확대”를 그 방안으로 보았다. 경과회의 건의 “복지연금” 조기실시, 『동아일보』, 1978.9.26. 이와 같은 중산층 육성에 대한 관심은 비단 박정희 정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1971년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또한 일찍이 집권공약으로 “대중경제”는 “중산층의 육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신민 김후보 집권공약 밝혀 “예비군 완전폐지”, 『경향신문』, 1971.1.23.

10) 새마을5년... 어디까지 왔나 (4) 정부주도와 민간참여-안보적 측면, 『경향신문』, 1975.6.19.

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시의 반공 이데올로기와도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는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공산주의는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것”¹¹⁾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중산층 육성에 대한 논리와 그로 인해 호명되는 중산층은 당대 정권이 내세운 근대 국가 건설의 핵심 논지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1960년대에 장려되었던 중산층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수치에 초점을 맞추었다.¹²⁾ 왜냐하면 이 시기는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 주도의 슬로건일 뿐 명확한 역사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¹³⁾이다. 또 농업인구가 도시 노동인구보다 그 수가 월등하게 많았으며 도시의 발전 또한 초기단계에 머물렀다.¹⁴⁾ 즉 1960년대는 중산층이 구체적인 형태의 집단으로 사회 전반에 등장하기에는 갖춰져야 할 환경들이 미성숙한 시기였다.

그런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붐을 일으키며 등장하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함께 중산층이라는 개념 또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회 전반에 제시된다. 또한 이 시기는 1960년대부터 이어졌던 경제 성장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수확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¹⁵⁾ 도시 노동인구와 함께 도시적 직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 글에서 다룰 「강변부인」이 집필되었던 1977년은 박정희 정권이 100억 달러 수출

11) 「새마을5년... 어디까지 왔나 (4) 정부주도와 민간참여-안보적 측면」, 위의 기사. 이 글에서 발췌한 발언은 충북제천 송학면 시곡2리의 새마을 지도자 엄태성 씨의 의견이다.

12)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8쪽.

13) 김성국, 「한국사회 중산층의 실체와 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993.5.31.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164호, 국어국문학회, 2013, 491쪽 각주 5 재인용.

14) 홍두승, 앞의 책, 8쪽.

15) 1970년대의 “경제 성장률은 1971년과 1973년에 각각 8.2%와 12%, (...) 1976년부터 1978년까지 10.6%, 10.8%, 9.3%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해천, 『아파트 게임』,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3, 22쪽.

목표를 달성한 해¹⁶⁾이기도 하는 등 중산층이 구체적인 형태의 집단으로 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들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대는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중산층이 등장하고, 그들의 주된 주거공간인 아파트와 생활양식이 부각되는 등 이전 시기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시대적 상황에 접어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호명된 한국의 중산층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해 범주화되었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⁷⁾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한정적인 의미에서나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정의되는 공통적 기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중산층 생활에 필요한 소득(자산이나 주택 등), 안정된 직업과 소득, (고등)교육수준 그리고 중산층에의 귀속의식이 그것이다.¹⁸⁾ 이 같

16) 박정희 정권은 1980년에 달성하겠다고 했던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3년 앞당긴 1977년에 해치웠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 1970년대 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02, 102-103쪽.

17) 한국의 중산층 정의를 놓고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논의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 사용되어 왔다.” 유팔무·김원동·박경수,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130쪽.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용어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개념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권 3호, 한국인구학회, 2006, 92쪽. 중산층에 대한 논자들의 관점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고 ‘중산층’의 지시 범주도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김예립,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연구』 32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47쪽.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다.” 오자은, 앞의 논문, 493쪽. “중산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논의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중산층’ 개념의 모호함은 한국적 ‘중산층’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김재원, 1960년대 후반 서울시 주택정책과 중산층 문제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쪽.

은 기본 요건 위에서 신광영, 홍두승, 김예림은 한국의 중산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먼저 신광영은 중산층을 “중간계급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과 도시와 농촌의 뿌뿌부르주아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과 노동자 계급 가운데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자 계급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¹⁹⁾고 논의한 바 있다.

홍두승은 중산층을 “베버가 계급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한 지위집단”과 그 성격이 가깝다고 말하며 지위집단에는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척도의 개념”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²⁰⁾ 이때 지위집단은 생활양식, 교육, 직업적 위신 등에 기초한 것이다.²¹⁾

김예림은 중산층에 대해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의 개발 정책이 계층의 분화를 초래하였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계층의 분화는 “동일화(=동질화)/차이화(=특화)라는 이중적 메커니즘을 통해 걸러지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순정품’인 ‘중산층 가정’ 모델은 상징적 인정투쟁의 장에서 ‘승리’하면서 부상한 특수한 계층문화 아이콘”이다.²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총력전적 개발 단계에서 집단적 가치론의 표준”으로 삼은 것은 중산층이 가져야 할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킨 이른바 “알짜 중산층”이었다는 것이다. 김예림은 “알짜 중산층”을 위한 “현실적인 충족은 특정 소수에게만 가능했지만 그 욕망과 꿈”은 모두가 다 나눠가질 수 있었다고 논의했다.²³⁾ 그에 따르면

18) 김예림, 앞의 논문, 350쪽.

19) 신광영,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의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 기기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6, 26쪽.

20) 홍두승·김병조,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기기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6, 5쪽.

21) 조동기, 앞의 논문, 92쪽.

22) 김예림, 앞의 논문, 351쪽.

23) 김예림, 위의 논문, 350쪽.

중산층의 범주는 넓고 다양하지만 정작 정부가 표준지표로 삼는 것은 “알짜 중산층”뿐이며, 나머지는 그 표준이 되고자 욕망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광영, 홍두승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참고하면서 김예림이 논의한 “알짜 중산층”에 주목하여 본고에서 사용할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자 한다.

김예림은 “알짜 중산층”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수치를 셈하는 데 있어 실질적 표본이 되었던 집단이라고 논의했다. 그의 논지에 따라 이 집단을 살펴보면 결국 “알짜 중산층”은 당대 다수의 노동자 계층의 삶과는 괴리를 갖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집단은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빚어지는 욕망은 다수의 관념 속에서만 소모된다.

그렇다면 “알짜 중산층”이 다수의 욕망을 부추길 만큼의 환상을 제공하려면, 그 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가까운 거리에 놓여서 환상이 사라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에 놓여서 감히 환상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집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즉 다수가 ‘나도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욕망을 관념 속에서 적당히 소모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이 호명한 중산층이란 대다수의 하층 노동자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기 보다는 그 대다수의 환상과 욕망을 자극할만한 일종의 ‘기호’로서 활용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추측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기호로서의 중산층을 통해 당대 개발 이데올로기가 주는 환상에 신뢰를 더 하고, 나아가 대다수 노동자 계층에게 번영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등 정치적 기제로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임하는 건전한 주체가 되도록 돕는 장치, 또는 국가의 개발 논리를 뒷받침해줄 근거로서 중산층이라는 기호를 활용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산층이란 당대 국가가 호명한 ‘기호로 활용된 중산층’(이하 중산층)이라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정의에 기반하여 「강변부인」 속 민희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당대 정부가 호명한 중산층에 속하는 계층이다.

신광영은 중산층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자영업이나 사무직, 경영, 관리직, 기술직 등”을 꼽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는 집단이다.²⁴⁾ 작중에서 남편 영준은 건설 현장의 감독으로 노동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 계층이지만 그 중에서는 상층에 포함되는 관리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두승은 “중산층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지표”로 “자가용 소유”, “브랜드나 디자인 중시한 구매형태”, “아파트 거주”, “쇼핑/외식”, “문화생활” 등을 꼽았다.²⁵⁾ 작중의 민희는 1970년대 당시 고급 아파트에 살며, 중산층이 아니면 소비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을 갖고 있으며, 가정부를 두고, 애완견을 키우고, 고비용의 여가생활을 누리는 등 당시 일반의 노동자 계층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생활양식을 영위한다.

이처럼 김승옥이 「강변부인」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산층의 모습은 민희네 가정처럼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당대 정권의 기호로 기능하였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김승옥의 대중소설 「강변부인」을 기본 텍스트로 놓고, 197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궤를 같이 하는 중산층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중에 드러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당대 국가 논리와 연결 지어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²⁶⁾

24) 신광영, 앞의 논문, 26쪽.

25) 홍두승·김병조, 앞의 논문, 13쪽.

26) 「강변부인」처럼 대중소설로 분류되는 김승옥의 작품 중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보통여자」(1969), 서울의 달빛 0장」(1977)을 꼽아 볼 수 있다. 두 작품 역시 중산층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심 서사를 이룬다. 이 중 이 글에서 「강변부인」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당시의 시대상과 중산층 가정의 상관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살펴 볼 수 있

「강변부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여성의 일탈과 욕망에 대한 논의²⁷⁾, 멜로드라마적 도덕성에 대한 논의²⁸⁾, 여성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논의²⁹⁾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중·후반에 발표됐던 김승옥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강변부인」에 대한 논의는 월등히 적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강변부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도 대체로 여성의 욕망, 정체성, 일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라는 시대는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당대 정권의 논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던 시기였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당대 논리에 따라 호명된 중산층은 주목해 볼만한 논지를 제공한다.

「강변부인」은 그동안 대중소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당대의 정치적 지형과는 유의미한 접점을 갖지 못한다고 선불리 판단되었다. 자연스럽게 논의 선상에서도 제외되곤 했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는 분명 당대의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강변부인」을 꼼꼼하게 다시 읽는 것을 가장 우선 목표로 두고, 중산층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1970년대 시대상 또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는 작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7) 김영애, 「김승옥 장편소설 연구 : 『보통여자』,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5권, 우리어문학회, 2005; 김지혜, 「부인의 일탈적 욕망과 단죄의 의미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승옥의 <강변부인>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5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 28) 오양진, 「과도기 의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김승옥의 <강변부인>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33권, 반교어문학회, 2012.
- 29) 장경실, 「김승옥 각색 시나리오에 내재된 ‘현대성’과 ‘여성의 주체구성’ 연구 : 『태양을 훔친 여자』,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코기토』 71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2.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중산층 가정과 중산층(으로)의 욕망

1) 중산층 가정의 주거공간과 생활양식

「강변부인」은 중산층 가정의 민희, 영준 부부의 불륜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민희네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가정주부인 민희, 남편 영준, 그리고 두 아들을 구성원으로 한 전형적인 서구식 핵가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관계는 가부장적이다. 남편 영준은 집안의 경제력을 도맡아 처자식을 부양하고, 아내 민희는 가정주부로서 집안, 남편,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작중에서도 드러난다. 민희와 영준의 관계는 분명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민희는 영준을 종종 “아빠”(4회)³⁰⁾라고 부르고, 영준의 불륜을 눈치 채 민희가 그의 동향을 살피는 대목에서는 “아버지한테 고백할까 말까 망설이며 눈치를 보는 딸의 표정”(4회)이라고 묘사된다. 이러한 묘사는 민희와 영준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실상 부녀관계와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영준과 민희의 관계는 동등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으로 영준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인 것이다. 작중의 말미에서도 민희의 불륜을 목격한 영준은 민희라는 여자가 바람을 뒀다는 사실에 대해 추궁하기 보다는 “모성애”(23회)를 운운하며 “엄마”(22회)로서의 자질을

30) 김승옥, 「강변부인」, 『일요신문』, 일요신문, 1977, 4회. 이 후 『일요신문』에 실린 「강변부인」에서 발췌하게 될 인용문은 본문에 회차만 표기한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강변부인」의 원본은 국회도서관 소장본이다. 그런데 국회도서관 소장본의 『일요신문』은 「강변부인」의 5회, 8회, 10회, 15회, 16회, 18회, 21회가 실린 신문이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변부인」에서 인용문으로 발췌할 내용 중 『일요신문』에서 누락된 회차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승옥 소설전집4』의 「강변부인」을 인용하도록 한다.

물으며 민회를 추궁한다. 이것은 영준의 머릿속에 민회는 현모양처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민회네 가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했던 가족정책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했던 가족의 모습은 가족형태로는 서구적 핵가족의 창출³¹⁾이었고, 가족관계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재생산³²⁾이었다.³³⁾ 이에 따르면 민회네 가정으로 대변되는 중산층 가정은 당시 정권이 내세운 가족정책의 표본이 되는 셈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가족정책은 근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던 만큼 이에 해당되는 중산층 가정은 근대적 가정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회네 가정의 주거공간과 그들이 영위하는 생활양식은 근대적 가정을 표상하는 기표가 된다. 그들은 “현대적 행복의 아이콘, 건전한 생활 문화의 실현태, 국가발전의 젠더적 역할·위계 설정의 안정적 착상지로서 그 가치론적 우위를 점”³⁴⁾하게 되는 것이다.

31) 박정희 정권은 서구적 핵가족의 창출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가 국가의 근대화를 방해하고 삶의 질을 하향시킨다는 캠페인을 내세우며 진행되었다. 인구증가의 억제가 근대성, 가족복지, 행복을 가져온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후 19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유인 및 규제정책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가족계획사업은 외형상으로 서구적 핵가족과 같은 가족형태를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정진성,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156-157쪽.

32) 박정희 정권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재생산을 위해 일제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호주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호주제도를 계속 유지시킨 것은 이것이 국민감시 및 통제 장치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개별 가족에게 노동력 재생산을 전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정진성, 위의 책, 158-159쪽.

33) 정진성, 위의 책, 155쪽.

34) 김예림, 앞의 논문, 359쪽.

민희네 가정은 자가(自家)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 후반 당시 서울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핵가족의 증가로 주택난을 앓고 있었고, 따라서 당시 까지도 서울 인구의 절반가량의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다.³⁵⁾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4회)의 “육십 평”(271쪽)³⁶⁾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민희는 명백한 중산층 가정에 속한다. “다섯 개”(272쪽)의 방이 있는 이 아파트에서 민희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정부를 거느리며 애완견 헬가를 키우고 있다.

여기서 민희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아파트는 당대 국가 정책은 물론 중산층이라는 계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1964년 마포아파트단지 완공 당시 박정희의 연설을 살펴보면 일찍이 “아파트는 국가 현대화의 도구이자 모든 봉건제도의 잔재, 농촌의 낙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표현”³⁷⁾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불확정적인 것이었다.³⁸⁾

이후 1970년대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압축적 경제성장을 시작한 한국 사회에는 사회계층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주택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화는 신중간층의 증가였다. 여기서 신중간층이란 정부관리, 간부급 사무직 근로자, 학자, 교육자, 언론인, 작가 등으로 서울의 경

35) 김중희·김영찬, 「1960~19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0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126쪽.

36) 김승옥, 「강변부인」,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5, 271쪽. 이 후 『김승옥 소설전집4』에 실린 「강변부인」에서 발췌하게 될 인용문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한다.

37)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130쪽.

38)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131쪽.

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10.4%에서 1980년에는 18.7%로 증가했다.

이 같은 사회계층의 변화는 ‘더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수출 증대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수요를 충족시킬 역량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도시 환경은 점점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아파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였다.³⁹⁾ 정부는 아파트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아파트의 불확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 남동부의 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등 정책적 개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파트는 신지식인 혹은 중산층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계층에 따른 주거공간은 더욱 확연히 구별”⁴⁰⁾되었다. 즉 당시 아파트는 정부의 근대화 전략과 그에 따라 일어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물이자 중산층을 표상하는 당대의 가장 근대적인 주거공간이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은 1972년에는 4%, 1977년에는 7%에 그쳤지만 텔런트, 사장, 고급 관리,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의 상당수가 아파트로의 이사를 서둘렀다.”⁴¹⁾ 아파트

39)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현암사, 2013, 20-21쪽.

40) 장림종·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2009, 246쪽.

41)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2011, 237쪽. 박해천에 따르면 당시는 문인들 또한 아파트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문인으로는 김승옥, 최인호, 황석영, 하근찬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승옥은 당시에 “벌써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원고를 쓰고”있었다고 한다. 『아파트촌 새 풍속기: 신부의 꿈』, 『중앙일보』, 1977.2.9.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237-239쪽 각주 2번 재인용. 위 기사는 1977년 것이니 10년 전이면 1967년인 셈인데 김승옥은 아파트가 한국에 지어지기 시작한 거의 초창기 무렵부터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생활, 즉 중산층으로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생활은 몸소 체험한 경험이 되어 작품 『강변부인』을 집필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는 1964년 박정희가 예견한대로 곧 “현대적인 문화생활”⁴²⁾의 표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민희네 가정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대의 국가가 호명한 중산층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희네 가정으로 표상되는 중산층의 생활양식은 어떠한가? 먼저 남편 영준은 술값으로 “이십만 원”(2회)을 요구하는 술집 여자 선화에게 그 자리에서 “이십만 원짜리 수표”(2회)를 건네고 선화에게도 “구두나 한 켤레 맞추라”(2회)며 “만원”(2회)짜리 지폐를 건넬 만큼 물질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한다. 당시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9만 4510원인데 비해 637만 명의 근로자중 580만 명 이상인 88.5%가 생계비 미달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4만 50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78.8%이고 3만원 미만은 60%나 되고 있는 실정”⁴³⁾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영준의 씬씬이는 일반 도시노동자의 임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준의 소비활동은 그가 중산층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희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민희는 즐겨 찾는 “의상실”(1회)이 있으며, 밤엔 “나이트클럽”(1회)을 가고, 낮에는 “백화점”(6회), “영화관”(6회) “워커힐 힐탑바”(4회)등을 다닌다. 종종 한가로울 땐 집 베란다에서 “일광욕”(211쪽)을 즐기기도 한다. 가정주부라곤 하지만 가정의 일은 대부분 가정부가 맡아하기 때문에 실상 작중에서 민희가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남편의 권유로 가지게 된 “취미생활”(227쪽)이 가정의 일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방문하는 취미”(230쪽)이다. 뇌물을 준 학생과 주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한 학교 선생 때문에 극성인 엄마들이 봉투를 들고 “학교 방문”을 하는데, 남편은 민희에게 바로 그 일을 “취미생활”이라 이름붙이며 권유한 것이다. 당시 뇌물은커녕 당장 집에서 여가를 누릴 시간조차도 가질

가능성이 크다.

42)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237쪽.

43) 저임금 조사 특위안도, 『동아일보』, 1977.10.8.

수 없었던 하층의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민희가 “학교 방문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 역시 중산층 이상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취미였다.

이 외에도 민희네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또한 주목해 볼만하다. 근대화 시기에 테크놀로지의 소비는 근대화된 가정의 상징임과 동시에 부의 상징⁴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희네 집의 가전제품으로는 “자차”(6회), “전화”(216쪽), “전축”(278쪽), “냉장고”⁴⁵⁾(273쪽) 정도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표범 털가죽의 무늬를 한 긴 소파”(279쪽), “양키 물건 장수 아주머니한테”(277쪽)서 구입한 미제 “그릇”(277쪽), 미제 “화장품”(277쪽) 등 가구, 식기, 미용용품의 구입 및 사용 또한 들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의 83.3%가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고, 냉장고 보급률은 97.2%, (...) 유행이었던 오디오 시스템은 75.7%, (...) 자가용 승용차는 29.8%”⁴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주거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소비 품목이었다. 또 이러한 가전제품들은 당시 “가정의 중산층적 안락함과 편리함을 보장해주는 것”⁴⁷⁾으로 중산층의 기표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과 그 속에서 소비되는

44) 김종희, 「여성들의 초기 텔레비전 수용경험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5) 텍스트에서 냉장고라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 거실의 소파에서 지금 마약 가정부가 가져온 냉커피잔을 받아들고 있는 양일을 돌아보았다”(273쪽)라는 구절을 통해 냉장고의 유무를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손님에게 냉커피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냉장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6)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283쪽. 위의 자료는 “1979년에 『여성동아』가 아파트 거주 41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로 “당시 중산층의 소비 양상을 잘 보여준다.”

47) 김예림, 앞의 논문, 363쪽.

가전제품을 비롯한 그들의 생활양식은 모두 중산층을 상징한다. 이는 특히 당시 근대 국가가 육성하고자 한 기호로서의 중산층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표임과 동시에 중산층의 삶이 당시 사회에서 근대의 표본적 삶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강변부인」에서는 이와 같은 당대 근대 국가의 논리를 보여주는 매개와 기표들이 작중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2)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을 향한 욕망

1980년대에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982년 36%, 1983년 39.1%, 1984년 42.6%, 1985년 57.7%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산층 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⁴⁸⁾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 박정희 독재 시대에 일종의 정치적 기호로 활용되었던 중산층이 이후의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89년 『한겨레』가 발표한 「나도 중산층이라는 환상과 대중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조할 만하다.

기사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 88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⁴⁹⁾ 그런데 기획원과 일간신문들은 “조사통계국이 (...) 전국의 1만 7천 5백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 작성한 이 지표”에서 “조사대상자의 60.6%가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⁵⁰⁾ 기사는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쓸모없는 대중조작”이라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중산층의 신화를 조작하는 일

48) 박해진, 『콘크리트 유토피아』, 286-287쪽.

49) 나도 중산층이라는 환상과 대중조작, 『한겨레』, 1989.1.25.

50) 나도 중산층이라는 환상과 대중조작, 위의 기사.

에 몰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은 곧 “정치를 잘한 결과라고 선전”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⁵¹⁾

이에 따르면 1980년대에 국민의 대다수가 ‘나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의식은 결국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활용된 기호로서의 중산층이 빚어낸 세뇌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에 대한 욕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산층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기호가 대다수의 무의식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렌즈가 되기 때문이다.

「강변부인」에서 중산층(으로)의 욕망은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데 민희네 집에 가정부로 있는 순자와 중산층임에도 더 상위 계층의 궤도에 편승하기를 욕망했던 민희네 부부를 들 수 있다.

헬가는 스피츠 암놈으로서 가정부 순자가 ‘우리도 개 한 마리 기르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애들이 덩달아 떼를 쓰는 바람에 몇 달 전에 개 파는 가게에서 사다놓은 것이었다.

“떡다 남긴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넣기가 아까우니까요.”

라는 것이 개를 기르자는 순자의 이유지만 보다 큰 이유는 ‘남의 집에 있는 것은 우리 집에도 있어야 한다’는 아파트 주민 특유의 경쟁심 때문이라는 걸 민희는 안다. 정작 주인들이 무심히 넘겨버리고 있는 것을 가정부들이 유난히 민감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211쪽)

민희네가 애완견 헬가를 키우게 된 것은 가정부 순자의 “아이디어”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의 집에 있는 것은 우리 집에도 있어야 한다’는 아파트 주민 특유의 경쟁심”을 “정작 주인”이 아닌 “가정부”가 느낀다는 것이다.

순자는 비록 고용주인 민희네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는 처지이지만, 그의 의식만은 민희네 가정 수준이 곧 자신의 수준이 되는 것이라

51) 나도 중산층이라는 환상과 대중조작, 위의 기사.

는 동일성 속에 놓여있다. 순자가 느낀 이러한 “경쟁심”은 스스로가 민회와 같은 중산층이라는 중산층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경쟁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 의식을 가졌다고 하여 순자가 진짜 중산층의 가정으로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순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⁵²⁾ 들인 가정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개 가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은 누구보다 순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순자가 느끼는 중산층 의식이란 실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여겨 갖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 되기를 욕망하기 때문에 생긴 욕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순자가 느낀 “경쟁심”이라는 것도 “소수의 중상류층을 모델로 한 모방 욕망”⁵³⁾인 것이다. 1970년대 당시 “서울의 1백 25만 가구에 식모의 수는 24만 6천 명 정도로 추산”⁵⁴⁾되었고, 이때 “식모의 99%가 지방출신”⁵⁵⁾이었다. 이를 상기한다면 가정부 순자가 느낀 중산층에 대한 욕망과 그에 따른 모방의 행위는 당시 지방출신 하층민의 욕망으로도 해석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순자는 중산층 가정의 안주인인 민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그 안주인이 키우게 될 애완견을 욕망한다. 이때 주목할 장면은 애완견을 키우게 된 이후 헬가가 발정기가 되어 암내를 내는 대목이다. 민회는 헬가가 암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지만 순자는 헬가의 암내를 알아채고 수놈과 교배를 시켜주리라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헬가의 성욕으로 대변되는 순자의 욕망은 민회가 보기에는 “망측”(211쪽)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52)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7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34쪽.

53) 김예림, 앞의 논문, 365쪽.

54) 가정부...그 실태와 변천, 더부살이 서 직업으로, 『동아일보』, 1973.2.12.

55) 가정부...그 실태와 변천, 더부살이 서 직업으로, 위의 기사.

이 “망측”한 욕망은 민희, 영준의 욕망 속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영준을 보자.

설흔여덟살. 이제 겨우 사회에서 확고한 자기자리를 잡고 보니 돈이나 쥐야 젊은 아가씨와 통할 수 있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서글픈 갈증을 풀어보려고 그는 크고 작은 술집들의 젊은 아가씨들을 닦치는대로 샀고 일단 산 아가씨들한테는 반발이나하듯 물건취급을 했다. (2회)

영준은 “사회에서 확고한 자기자리”를 잡은 대가로 서른여덟의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영준은 거기서 오는 “서글픈 갈증”을, 술집의 젊은 아가씨들을 사서 “물건취급”하는 것으로 풀어낸다. 영준의 이 같은 행위는 상층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그는 상층에 “자기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고 현재는 중산층이 됨으로써 그 욕망의 일정 부분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은 끊임없이 빈자리를 내어놓으며 정신적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중산층에 편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상층으로의 욕망을 느끼는 것이다. 영준은 그 욕망을 술집여자와의 성관계라는 성적 욕망으로 표출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 성관계 이후에도 “잡았다 놓친 듯한 허탈감, 도저히 잡아들 수 없다는 절망감”(2회)이 영준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영준의 이 같은 욕망 또한 민희와 꾸린 가정을 두고 외도라는 불건전한 방식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망측”한 욕망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희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 와보면 항상 어머니 몇 명이 선생님 주변을 에워싸고 쭈군거리기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 또 어떤 때는 유명한 화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여성단체 간부라든가 꽤 선 디자이너라든가 하는 여자들이 아이의 엄마로서 담임선생을 방문하

고 있는 모습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런 엄마들에게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에서 존경의 빛을 엿보고, 민희는 자기를 대할 때의 태도와 비교해 보곤 했다. 그러고 보면 자기란 여자는 아이의 엄마로서 아무 특색도 없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옆 사람이 보기에 눈살이 찌푸러질 만큼 적극적으로 선생을 독점하려 드는 열성도 부릴 수 없고, 선생 쪽에서 은근히 대해올 만큼 사회적 명사도 못 된다. 학교로 선생을 방문한다는 것은 민희로서는 자기가 지극히 평범한, 아니 무능한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228-229쪽)

민희는 남편의 권유대로 학교 방문하는 취미생활을 가져보려 하지만 그것은 여간 거북한 일이 아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자기가 지극히 평범”하고 “무능한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민희는 “적극적으로 선생을 독점하려 드는 열성도 부릴 수 없고”, 선생이 먼저 “존경의 빛”으로 대해올 만큼 “사회적 명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희가 자신이 속한 중산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민희에게 중산층이란 “평범”하지만 남들 “눈살 찌푸”리게 하기엔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사회적 명사”로서 인정을 받는 건 또 아니라 “무능”한 계층이다. 이는 민희로 하여금 늘 “열등감”(231쪽)과 “무력감”(231쪽)을 느끼게 한다. 민희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상층에 속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민희의 욕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서광호텔의 높은 건물 앞에서 차를 내리자 유니폼을 입은 호텔 보이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 나와서 민희와 함께 타고 온 여자머리 위에 우산을 받혀주었다.

“아니...”

호텔에 오는 손님이 아니라고 민희는 말하고 싶었으나 함께 타고 온 여자가 호텔보이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그 래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나 한잔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커피숍은 비 때문인지 앓을 자리 없이 만원이었다. 함께 왔던 여자는 엘리

베이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렇구나. 남자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거야. 어쩌면 창녀일지도 몰라. 웨이터가 빈자리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민희는 문득 그 여자가 행복해 보였다. 비맞은 모습으로 자리를 기다리며 서 있는 자기쪽이 초라한 창녀같고 거침없는 태도로 호텔을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가는 그 아가씨가 귀부인 같았다. (...)

“방이 있을까요?” (...)

“2시간만 쓸 수 있는 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만...”

“좋아요”

“룸차아지는 한 시간 사용하시나 하룻밤 사용하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얼만데요?”

“1만 6천원입니다”

2시간에 1만 6천원. 비싸지만 여차피 초라한 느낌을 떨쳐버리려면 차라리 꼭 비싸버리는 게 낫다. (9회)

민희는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우연찮게 한 여자 손님과 택시에 동승하고 이후 그 여자가 내리는 “서광호텔”에서 함께 하차한다. 민희는 분명 “호텔에 오는 손님”이 아니었지만 여자와 자신에게 “우산을 받혀주”며 대우를 하는 호텔보이와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민희는 만석이 된 커피숍 때문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가 방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때 그는 자신이 “초라한 창녀”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거침없는 태도”로 호텔방을 들어가는 여자는 그 순간 민희의 눈에는 “귀부인”처럼 보인다. 그런 “초라한 창녀”같은 느낌이 싫은 민희는 계획에도 없던 방을 빌리게 되고 그 비용은 2시간에 “1만 6천원”이었다. 당시 1만 6천원이라면 작중에서도 알 수 있듯 웬만한 여성의 구두 값 정도는 되고도 남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 민희는 그러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창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치고 “귀부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때 방을 빌려 들어간 민희가 그 방 안에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자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충동적으로 빌린 방에서 자위를 하는 민희의 모습은 학교를 방문 할 때마다 느꼈던 열등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호텔 방 안에서 민희가 하는 자위는 상층에 대한 욕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가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다분히 자위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위로 표현되는 민희의 성욕 또한 앞서 살펴본 작중 인물들의 욕망처럼 한낱 “망측”한 욕망일 뿐이다.

가정부 순자와 민희, 영준 부부는 모두 상층으로의 편입을 욕망한다. 이때 이들의 욕망은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⁵⁶⁾

하지만 순자의 욕망은 자신이 결코 민희와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는 이의 욕망이다. 거기서 빚어진 좌절감이 사람이 아닌 애완견의 성욕에 투영되어 드러난 것이다. 그에 반해 민희·영준의 욕망은 순자의 욕망보다는 더 현실성을 갖는다. 물론 작중에서 부부가 상위 계층으로의 편입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 말미

56) 작중 인물들이 갖는 상위 계층으로의 욕망을 논의 할 때에 예외 인물 운전기사 김 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씨는 민희의 불륜을 약점 삼아 검탈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이후 운전기사를 그만두면서 부부에게 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부부는 자신들이 김 씨에게 잡힌 약점(부부가 각각 저지른 불륜을 김 씨가 알고 있는 것)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다. 실상 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준 것이다. 이 같은 김 씨의 행동은 “어차피 해고당할 바엔 마침 쥐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한 몫 챙기겠다는 “비열한 계산”(7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중에서 김 씨는 자신이 중산층 궤도에 편입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것처럼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작중 인물 중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자와의 정을 통해 민희의 불륜 사실은 물론 “멘스날 짜”(7회)까지 알아내고, 영준의 불륜 사실 또한 알아내어 그 약점을 빌미로 이들 부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비록 김 씨가 민희에게 느낀 성적 욕망은 순자, 민희, 영준이 느낀 성욕과는 그 층위가 다르지만, 그들(순자, 민희, 영준)의 욕망에서 비롯된 부산물을 이용한 욕망이었다는 점에서 짝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에 민희의 불륜은 남여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는 침묵을 택하고 마는 서사를 상기하면, 이들은 어떤 부조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위 계층으로 편입할 인물들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부의 욕망에는 순자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이 묻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준처럼 상위 계층으로의 편입을 열망하는 과정 속에서 “늬은이”가 되는 대가를 치른 허무함을 보여주거나 혹은 민희처럼 끊임없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모습, 나아가 호텔 방에서 자위를 하며 그야말로 스스로의 처지를 자위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상층으로의 편입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색채는 서로 닮아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놓인 사회적 위치, 즉 계층 혹은 계급에 따라 그 욕망의 색채는 또 다른 이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욕망이 단일한 층위에 놓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작중 인물들이 보여주는 중산층(으로)의 욕망을 모두 “망측”한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욕망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여준 욕망의 모습은 당시 국가가 강조했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작품 말미에 가면 오히려 그들의 “망측”한 욕망이 당대 국가가 장려했던 중산층과 중산층 가정의 허상, 판타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심장한 서사 전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다.

3. 국가가 장려했던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허상

1) 계층 상승의 교환가치로 전략하는 몸과 집

「강변부인」이 집필되고 난 후 1년 뒤인 1978년 『동아일보』에는 「뚝배

기와 장맛』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칼럼이 게재된다. 이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상옥이라는 인물이 쓴 글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지금 서울의 번두리에 건축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규모를 보라. 이게 모두 우리나라 중산층의 집이라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중산층이 선진국의 중산층을 앞지르게 되었나 싶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⁵⁷⁾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선진국의 중산층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집단이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연재되었던 『강변부인』 속 민희의 집과 그의 가정은 이상옥의 말처럼 “자랑스럽”게만 그려지지 않는다.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위와 같은 글이 중산층의 외향,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지표 등 가시적인 것에만 주목하였다면, 김승옥의 『강변부인』은 당시 화려한 껍데기를 옷처럼 껴입은 중산층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면모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선을 떨어뜨렸을 때야 청년이 입을 열었다.

“이모님의 비밀을 엿들으셨다구요?”

“...그게 아니구...”

“참 제 소개를 안했군요. 전 최양일입니다. (...) 이모님은 윤택하구 가끔 재미보구 지내는 사이죠. (...) 그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비밀을 지키겠어요. 정말...”

“무얼로 그 약속을 보장하시겠어요?”

“하느님께 맹세코...”

“전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요.”

“.....”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아주머니 자신뿐인데요.”

“.....설마.....” (13회)

57) 뚝배기와 장맛, 『동아일보』, 1978.8.9.

민희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영준의 시공기념 파티에 따라갔다가 그 집의 안주인인 남여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다. 그 사실을 남여사에게 들킨 민희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증표로 남여사의 조카 최양일과 성관계를 맺는다. 민희는 “비밀”을 지킨다는 “보장”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비록 민희 또한 양일과의 관계 후에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싶다는 유혹에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작은 결코 민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것은 남여사의 불륜을 목격하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벌어졌다. 또한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최양일과의 성관계는 민희에게 애초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여사는 남편의 출세를 보장해 줄 강위원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희의 처지는 남편 영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학건축과를 졸업”(2회)하고 “공사현장 감독”(2회)으로 일하고 있는 영준은 강위원에게 의뢰를 받고 은퇴 후 그가 지낼 집을 지어주었다. 영준이 강위원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을 하고, 그 건축 현장의 감독을 맡았다는 것은 그의 일이 대개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작업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영준 또한 민희처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몸을 담보로 그들의 입맛을 맞춘 셈이다.

여기서 영준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대 정권의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1972년 수립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1972-82년도 시행)은 도심 업무 지구 개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의 개선 등”⁵⁸⁾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은 특히 도시 기능의 분산과 한강 남동 지역의 미개발 공간을 염두에 두었고, 강북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의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도 포함”⁵⁹⁾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작중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영준의 일터가 “영

58)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35쪽.

59) 발레리 줄레조, 위의 책, 35쪽.

동 공사장”(6회)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그것이다. 영동은 현 강남으로 당시 정권이 한창 개발에 열을 올리던 구역 중 하나였다. 이 “영동 공사장”에서 건설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은 이후 “영동적인 것”이라는 ‘평범치 않지만 평범한’ 중산층 문화를 창출⁶⁰⁾해내기 시작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준이 중산층 문화를 창출해내는 매개인 아파트(집)를 건축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의미심장해진다.⁶¹⁾ 영준이 건축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가 속한 중산층이라는 계층, 그리고 더 상층에 속하고자 하는 계층 상승에 대한 그의 욕구와도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당시 집과 계층이 갖는 상관관계⁶²⁾를 건축업에 종사하는 영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0)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286쪽.

61) 1970년대로 접어들며 급속도로 성장한 아파트와 관련해 당시 중산층 가정의 아내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들 중 일부는 직장생활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복덕방 순례와 아파트 정약을 도맡음으로써 1970년대형 치맛바람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박해천, 『아파트 게임』, 24쪽. 「강변부인」에서는 민희가 영준 대신 소위 북부인으로 불리는 역할을 도맡아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그러나 영준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의원의 아내 남여사와의 관계를 위해 불륜을 눈 감겠다는 맹세의 증표로 자신의 몸조차 교환가치로 전락시키는 민희의 모습은 재산증식, 계층 상승을 위해 북부인의 역할을 맡았던 당대 아내들의 역할과 그 성격이 같다. 당시는 민희로 대변되는 “주부의 욕망은 부업이나 재산증식을 통한 경제적 역할을 지지하는 사회적 담론들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 구술생애사 사례 분석」, 『가족과 문화』 25권 2호, 한국가족학회, 2013, 34쪽. 이 정당화는 이후 영준이 민희와 양일과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남여사에게 따져 묻는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62) 1970년대 일본에서도 계층과 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집을 가졌다는 것은 중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5년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은 중류층이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사람이 중류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의 근거가 자기소유의 집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급의 문제는 매우 직접적으로 집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유코, 임미진 역, 『문학에 나타난 생활사 : 주거와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 제이앤씨, 2012, 55쪽.

바보 허수아비가 되어 저들에게 농락당한 건 민희 자기만이 아니다. 자기 여편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바깥 잔디밭에서 굽직한 일거리나 하나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늙은 재계 거물의 잡담 상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 역시 꿈쩍없이 바보가 되고 만 것이다. (264쪽)

따라서 영준과 민희는 “저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굽직한 일거리”를 따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바보 허수아비”가 되어 열심히 “상대”할 수밖에 없다. 부부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이런 “농락”과 모욕도 감수하며 견디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상류사회”(263쪽)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영준과 민희는 자신들의 육체를 “상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교환가치로 전략시킨 것이다.

이때 몸의 교환가치화는 이후 집의 교환가치화로도 이어진다. 이는 남여사가 자신의 불륜 상대와 함께 민희네 집을 방문하여 집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하라면 이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다. (...) 자기와 남편만이 사용해온, 이제껏 어린애들마저도 잠재워보지 않았던 신성한 침실이 무례한 침입자들에 의하여 한바가지 똥이 끼었던 듯 모욕감을 느끼고, (...) (17회)

남여사의 말뜻은 뻔했다. 가정부에게 애들을 팔려 밖으로 내보내고 남편도 부산에 가고 없겠다. 마음 탁 놓고 정부들과 실컷 놀아나보자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본의는 아니지만 양일리와 몸을 섞었다는 약점을 잡힌 탓에 앞으로 자기 자신의 기분이 아닌 남여사의 기분에 말려들어 내키지도 않는 정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예감에 두려워하고 있던 민희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던 사태가 들이닥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구나 바로 민희 자기 집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7회)

남여사는 “민희네 침실보다 더 안전하고 마음의 부담이 없는 밀회장소”(17회)는 없기 때문에 민희의 집에 왔다고 말한다. 분명 민희는 자신의 “침실”만은 “신성”하기 때문에 “자기와 남편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상층인 남여사의 요구는 민희로 하여금 양일과 “신성”한 자신의 가정집에서 “내키지도 않는 정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만큼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

결국 민희는 남여사에게 “밤새도록”(17회) 자신의 “침실”을 빌려준다. 이로써 민희네 부부가 가장 개인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집은 남여사로 인해 일개 숙박업소와 다를 바 없는 공적(公的)인 장소로 전략해 버린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민희가 얻게 되는 것은 남여사와의 끈끈한 친분이다. 남여사와의 친분은 남편의 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영준과 민희가 욕망하는 상위 계층으로의 편입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민희는 이를 위해 “신성한 침실”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은 가정 밖으로 몰아버린다. 그것이 민희네 가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여사는 출세라는 카드만 내밀면 언제든지 민희네 “침실”을 빌려 쓸 수 있을 것이다. 민희네 집은 철저하게 교환가치로 전략한 것이다.

2)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모순과 허상

민희는 양일과의 관계를 털어 놓았다. 남여사의 비밀을 알게된 것, 입막음의 약속으로서 양일과 관계하게 된 것 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바보같은이 왜...”

영준은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강의원을 만나야겠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짝 없애 버려야 해.”

“그러지 말아요.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밤통 같은 소리 하지마. 그런 년놈들을 가만두면 제2, 제3의 피해자

가 생기는거야”

남편이 강의원에게 남여사의 행실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일러바친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강의원에게 얼마나 타격이 클 것이며 남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희로서는 외출복을 입고 있는 남편에게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다.

“제발 그만 두세요.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생각하겠다고 했잖아요. 남의 조용한 집안에 말썽을 일으킬건 없잖아요”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으면 자기네도 당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강의원한테는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모르면 속편한거예요. ‘당신부인이 이런 짓을 합니다’고 일러바친다고 그 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라고 편할 것 같아요? 나보구 애들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용서해준다면 당신 시키는대로 하겠어요. 제발, 그 집에는...”

(...) 영준은 민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23회)

작중 말미에 이르러 민희와 양일은 영준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이후 영준은 이 모든 일의 전말에는 남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엄밀히 따지자면 민희는 남여사가 권 권력의 횡포 속에서 희생된 “피해자”이다. 그러나 영준은 강의원에게 말하지 말자고 사정하는 민희의 말에 동의한다. 정확히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라고 편할 것 같”냐는 말에 동의한 것이다. 영준 또한 민희처럼 남여사의 부정을 묵인하는 것만이 자신의 출세와 상위 계층으로의 편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영준은 남여사에게 풀어야 할 몫의 분노를 모두 민희에게로 집약시킨다. 민희의 뺨을 “힘껏 내리”(23회)친 영준은 “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내 손으로 죽여 버릴 거”(23회)라고 외친다. 그리고 얻어맞은 민희는 “평생토록 이 남자 앞에서는 죄인으로서 얻어맞고 지내야 한다면”(23회)이라는 생각에 잠기면서 작품은 마무리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마무리를 통해 민희네 가정에는 앞으로도 강의원 내외와 같은 “거물”이 등장하면 언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

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민희네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대 국가가 호명한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형태를 여전히 유지한 채이다. 그러나 그 가정의 실상은 출세를 위한 불륜과 그런 불륜을 모른 척하는 묵인, 방관, 협박, 강간 등으로 점철된 가장 불건전한 형태로 유지된다. 이것은 당대 국가가 장려했던 건전한 중산층 가정이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껍데기에 불과한 허상이었던 것인지를 폭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권은 “중산층의 건전한 형성을 촉구”⁶³⁾하였다. 또한 “모든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산층의 자본 형성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⁶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맥락은 모두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나 정치적 구호라는 의도 속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장에서도 언급하였듯 당시 중산층의 육성은 곧 국가 경제 성장 지표로 활용되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정희가 1인당 GNP를 높이기 위해 일찍이 인구 정책에 관심을 두며 인구 줄이기에 매진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⁵⁾

이에 따르면 정부가 장려했던 중산층의 육성 또한 그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상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내는 요소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은 경제 성장의 수치를 가시적으로 수치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만 전략하는 것이다. 마치 소설 속 민희네 가정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불건전한 형

63) 1천달러 시대와 경제정책, 『매일경제』, 1977.12.28.

64) 1천달러 시대와 경제정책, 위의 기사.

65) 박정희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을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로 접어들며 인구정책은 서서히 그 골격을 갖추게 된다. 박정희 정권이 인구정책에 주목한 것은 그것이 1인당 GNP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게 “1인당 GNP를 높이는 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군사작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강준만, 앞의 책, 15-16쪽.

태로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다.

김승옥은 『강변부인』의 저자 후기에서 “이상은 없고 경제적인 여유만 가진 계층이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다. 그 시시한 계층에 낄 수 있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⁶⁶⁾고 말했다. 그는 일찍이 “경제적인 여유만 가진 계층”이 얼마나 “시시한” 것이며 “이상”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에 대한 김승옥의 통찰은 『강변부인』의 작중 인물들을 통해 대중소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중산층과 중산층 가정을 둘러싼 허상과 판타지를 교묘히 드러내고 비웃으며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된다.

4. 중산층 판타지의 젠더 편향성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희네 부부를 위시한 중산층의 욕망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남성 인물 영준이 여성 인물 민희를 단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는 아니다.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영준에게 민희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며 소설이 끝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같은 결론은 결국 소설 곳곳에 녹아있는 젠더적 위계와 관련 되기 때문이다.

작품 말미에서 영준이 민희를 폭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양일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불륜에 대해서라면 영준 역시 민희를 나무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 또한 이미 술집여자와 부정을 저지른 탓이다. 그러나 민희는 영준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그것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는다. 소설의 전개상으로도 영준의 불륜은 민희의 부정처럼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민희와 영준의 불륜이 각각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는지에 주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66) 김승옥, 『강변부인』, 한진출판사, 1977, 265쪽.

앞선 장에서 언급하였듯 민희가 양일과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은 남여사의 부정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⁶⁷⁾ 그래서 민희는 양일과 원하지도 않는 성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영준은 민희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게 협박을 받아 강제로 술집여자와 성행위를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다. 영준은 그 어떤 외부 압력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준의 행위는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희의 행위는 단죄의 대상이 된다.

이는 여성을 둘러싼 당대의 성 담론과 연관된다. “산업화 시기 여성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충효 등 유교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었다.”⁶⁸⁾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은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이라면 육체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옳은 가치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논리에 당대의 사람들 또한 동조하고 따랐다는 점이다. 당대 중산층은 여성노동자로 대표되는 여성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교화와 계도를 강조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란한 성생활은 중산층 가정을 위협할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⁶⁹⁾

이 주장의 방점은 여성노동자에게만 찍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계급, 계층의 여성들 역시 이 같은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소설은 당대의 성 담론 프레임을 작중 인물 민희에게 덧씌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희의 부정행위는 영준의 그것과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는 죄가 된다. 작품은 명백하게 젠더적 위계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67) 소설의 전개를 보면 민희는 양일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남편 영준이 알지 못하며, 서사 전개상으로도 양일과의 불륜 관계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에 이 글의 논의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 않기로 한다.

68)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10(개정판), 560쪽.

69) 김원, 위의 책, 562쪽.

한편 위 대목은 계층 상승을 위해 민희네 부부가 남여사네 부부에게 몸을 교환가치로 제공하였던 장면과도 연결된다. 영준과 민희는 각각 건축업과 성행위를 통해 남여사 부부의 비위를 맞추었다. 부부의 행위는 계층 상승을 위해 몸을 바쳤다는 점에서 의도의 불순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 행위가 갖는 사회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

영준의 건축업은 당대 국가의 발전 및 개발 이데올로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당대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국가가 장려하는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동 중 하나이며 생산적인 활동이 된다. 하지만 민희가 양일과 한 성관계는 어떠한가? 분명 민희의 성행위는 그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국가가 장려하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동이 아니며 생산적이지도 않다. 즉 영준의 행위는 국가의 모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민희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천박한 행위일 뿐이다. 이처럼 소설은 민희와 영준이라는 작중 인물을 내세워 서사 전개를 하면서 중산층의 부조리나 천박한 욕망을 여성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의 제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변부인을 풀어보면 말 그대로 강의 변두리에 있는 부인이라는 뜻이다. 즉 흐르는 강물은 되지 못하고 강의 변두리를 맴도는 여성이 강변부인인 셈이다. 당대 정권의 개발 이데올로기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뒤로 후퇴하는 것 없이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며, 발전, 개발, 생산이 주가 되는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결코 흐르는 강물처럼 주된 물줄기가 될 수 없었다. 언제나 강의 변두리에 서서 그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주변인일 뿐이다.

이처럼 중심은 남성, 주변은 여성이라는 노골적인 젠더적 위계는 작중 내용뿐 아니라 소설의 제목에서부터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똑같이 계층 상승을 위한 행위를 하였어도 남성 인물인 영준의 행위는 건설적인 것으로, 여성 인물인 민희의 행위는 천박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의 마무리로 영준이 민희를 폭

행하며 끝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른다.

다시 「강변부인」의 저자 후기를 살펴보자. 김승옥은 이 글에서 “이 소설에 작가의 주장 같은 건 아예 없다. 카메라가 사물을 찍어내듯 다만 객관적인 눈으로 한 시시한 여자를 쫓아 보았을 뿐이다”⁷⁰⁾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강변부인」은 정말 “작가의 주장 같은 건 아예 없”는 소설이며 “객관적인 눈으로” 쓴 작품일까? “한 시시한 여자를 쫓아 보았”다는 구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김승옥은 중산층을 둘러싼 당대 정권의 부조리를 보여주었으나 한편에서는 정작 그에 따른 주체의 천박한 욕망과 부정을 모두 “한 시시한 여자”의 것으로만 수렴하고 있다. 분명 그는 당대의 질서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눈”으로 시대를 읽어내며 통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젠더적 위계를 통해 개발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였던 지배 질서의 함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그대로 체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5. 나가며

박정희 정권의 근대 국가 논리와 그 속에서 호명된 기호로서의 중산층은 당대 정권의 지배 질서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김승옥은 「강변부인」에서 당대가 호명한 중산층에 주목하여 서사를 풀어나갔다.

작중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표상으로 주거공간과 생활양식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표였다. 특히 주거공간으로 제시되었던 아파트는 당대의 국가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임과 동시에 1970년대 중산층 가정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이자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70) 김승옥, 『강변부인』, 한진출판사, 1977, 265쪽.

다. 소설에서는 이 같은 중산층의 표상을 주인공의 주거환경, 가정생활, 취미생활 등을 통해 보여준다.

소설은 작중 인물들이 가진 중산층(으로)의 욕망을 담아냈다. 가정부 순자와 민희, 영준 부부는 모두 상층으로의 편입을 욕망한다. 이들의 욕망은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하지만 작중에서 그들의 욕망은 “망측”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서사 말미에 가면 정작 이 “망측”한 욕망이 중산층, 중산층 가정의 허상과 판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왜냐하면 민희네 부부가 욕망했던 계층 상승은 그들의 몸과 집을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정 또한 불륜을 목인하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 가장 불건전한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대 정권이 장려한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는다. 또 당대가 말하는 중산층 가정의 실상이 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옥은 이 같은 당대의 모순적인 상황을 「강변부인」 속 작중 인물들을 통해 대중소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주 교묘히 드러내고 비웃으며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중에서 보여주는 중산층의 판타지에는 적나라한 젠더적 위계가 녹아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계층 상승의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임에도 영준의 행위는 건설적인 것으로 표상되지만 민희의 행위는 천박한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영준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으나 민희의 행위는 단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중산층의 부조리나 천박한 면모를 여성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김승옥은 분명 당대의 질서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눈”으로 시대를 읽어내며 통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젠더적 위계를 통해 개발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였던 지배 질서의 함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그대로 체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승옥, 『강변부인』, 『일요신문』, 일요신문, 1977.
_____, 『강변부인』, 한진출판사, 1977.
_____,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_____,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김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 1970년대 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02.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 구술생애사 사례 분석」, 『가족과 문화』 25권 2호, 한국가족학회, 2013, 29-61쪽.
김영애, 「김승옥 장편소설 연구 : 『보통여자』,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5권, 우리어문학회, 2005, 499-517쪽.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연구』 32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39-375쪽.
김 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의』, 이매진, 2010(개정판).
김재원, 「1960년대 후반 서울시 주택정책과 중산층 문제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중희, 「여성들의 초기 텔레비전 수용경험에 관한 민속학적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중희·김영찬, 「1960~19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0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109-155쪽.

- 김지혜, 「부인의 일탈적 욕망과 단죄의 의미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승옥의 <강변부인>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5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01-128쪽.
- 니시카와 유코, 임미진 역, 『문학에 나타난 생활사 : 주거와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 제이앤씨, 2012.
-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1996.
-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현암사, 2013.
- 박해천, 『아파트 게임』,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3.
- _____,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2011.
-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 신광영,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의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6, 19-28쪽.
-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민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7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9-60쪽.
- 오양진, 「과도기 의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김승옥의 <강변부인>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33권, 반교어문학회, 2012, 141-163쪽.
-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164호, 국어국문학회, 2013, 489-518쪽.
- 유팔무 · 김원동 ·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 장경실, 「김승옥 각색 시나리오에 내재된 ‘현대성’과 ‘여성의 주체구성’ 연구 : 『태양을 훔친 여자』,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코기토』 71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211-252쪽.
- 장립중 · 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2009.
- 정진성,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 정중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 1940~19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권, 동국대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49-195쪽.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권 3호, 한국인구학회, 2006, 89-109쪽.

홍두승·김병조,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기타 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6, 2-17쪽.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3. 신문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일요신문』, 『한겨레』.



<Abstract>

Desire and Delusive Gender of
Middle-income Family Promoted by Modern
State Logic in the 1970's
- Focusing on 「Mrs. Kangbyun」 by Kim Seung-ok

Gwon, Hyeon-Jeong

Focusing on a key word of middle-income family in the 1970's, this study examined 「Mrs. Kangbyun」 of Kim Seung-ok in relation to regime and its policy at that time.

Residential space and lifestyle of middle-income family is presented as a modern symbol at that time. In this process, desire for middle-income family goes along with sexual desire the subject had. The sexual desire of the subject is considered only as a vulgar instinct. However, at the finishing part of the novel, the indecent desire is used as a device to represent the delusion of middle-income or middle-income family. It is because desire for middle-income family degrades her body and house as exchange value for class rising and in this process, her family is also maintained in an unwholesome form through connivance and onlooking of infidelity. This novel reveals the reality by skillfully deriding popular vein and mass appeal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the point to notice here is the fact that explicit gender hierarchy is embedded at fantasy of middle-income family disclosed by the novel. Though they are the same behaviors caused

by the desire for class rising, the man's behaviors are considered constructive and the woman's behaviors are discounted as something vulgar. They are divided due to gender hierarchy. It is because there is an attitude to identify the absurdity or vulgar aspects of middle-income family as feminine things.

Kim Seung-ok definitely tried to read the signs of and gain an insight into the time through 'Mrs. Kangbyun', keeping a distance away from the order at that time. Nevertheless, the author himself is embodied as he is at the novel, not getting away from a trap of the ruling order to compose ideological discourse developed by gender hierarchy.

Key Words : 'Mrs. Kangbyun', middle-income, middle-income family, desire, delusion, gender hierarchy

■ 논문접수 : 2016년 10월 28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КСІ